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 개최

“소상공인 지속성장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주무부처 이관 필요”

온라인·디지털화 등 정책방안 논의
협동조합 정책 일원화 한 목소리
“더욱 전문적인 지원체계 마련해야”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규모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기본법’의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포함한 협동조합 정책을 일원화하고 더욱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기재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기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각각 관장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구조가 꼭 필요한 만큼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위한 법·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디지털화 등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토론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의 성장정책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 민주연구원 정상희 정책연구실장은 “소상공인은 가장 작은 기업형태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한다”면서 “모든 소상공인이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해 성장하는 방향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한게 현실인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강화’에 맞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회계, 매장관리, 금융, 마케팅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 및 확산 ▲전문 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디지털·경영역량, 재도전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정부의 ‘상권르네상스 2.0 정책’을 활용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강화 역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

점을 두어야한다는 분석이다.

정상희 실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바꿔 정책 및 실행체계 일원화, 전문화된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는 공동행위를 비롯한 협의요청권 부여 뿐만 아니라 플랫폼 입점업체, 대리점, 가맹점 등 본사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위평량 소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

제로 한 발표에서 “온플법 및 디지털시장독점규제법 제정,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강한 규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불공정과 부당행위에 대한 올바른 통제와 규제 등 공정한 거래구조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배달 및 광고수수료 등 플랫폼 관련 각종 비용을 인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마련하는 등 각종 수수료 부담 문제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단계 내(within)-단계 간(between) 이원화된 성장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며 ‘Two-track Build Up Strategy’를 정책으로 제안했다.

소공연 차남수 정책개발본부장은 “성장을 위해선 소상공인을 생계형→안정형→성장형→기업형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한다”면서 “단계 내 빌드업’은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지원, ‘단계 간 빌드업’은 사다리형 성장 지원에 집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민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박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가운데)이 17일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에서 열린 ‘2025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확대

중기부, NH농협은행 등 업무협약
내달 15일부터 4개 은행 가입 가능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목돈 형성을 돕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이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가입은행이 기존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4곳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달 15일부터 4개 은행 전국 2500개 지점에서 우대 저축공제 가입이 가능해져 더 많은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소기업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가 매달 10만~50만원을 납

입하면 기업이 매달 근로자 저축액의 20%를 지원하고 은행에선 최대 4.5%의 금리를 우대해 5년 만기시 398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우대 저축공제는 민간은행과 정부가 협업해 지난해 10월 출시한 이후 1년 동안 7100개사에서 3만6500여 명이 가입했다. 지난 9월에는 기존 5년형 상품에 더해 3년형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선택의 폭도 넓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가한 NH농협은행 강태영 행장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따뜻한 금융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한패스, 쌍인 대표가 직접 참석해 청년 재직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우대 저축공제 사전 청약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공급망 등 탄소감축 본격 지원

중기부·현대차 등 상생 협약식
주력산업 탄소 경쟁력 제고 협력

정부와현대차·기아가자동차부품 협력 중소기업들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하는 등 자동차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는 현대차·기아, 자동차 부품 협력 중소·중견기업 87개사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산업부도 올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인 LG전자, LG화학, LX하우시스, 포스코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새로 시작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

을 통해 공급망 전반으로 본격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부와 현대차·기아가 우선적으로 1차 협력업체의 탄소감축 설비교체를 지원하고, 해당 1차 협력업체는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환원해 중기부와 함께 다시 2차 협력업체의 설비교체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자동차·공급망에서의 ‘연쇄적 탄소 감축 효과’를 통해 민관이 함께 하는 상생형 탄소 감축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대차·기아는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완성차의 탄소 발자국을 낮춘다. 외부사업을 통해 확보한 배출권은 향후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배출권’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기부와 산업부는 이번 자동차 공급망을 시작으로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등 다른 주력산업으로 ‘공급망 탄소파트너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기보-신한은행

베트남 진출 기업 금융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신한은행과 함께 베트남 진출 신기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기보는 지난 14일 베트남 호치민 신한 베트남은행 본점에서 신한은행과 ‘베트남 진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신한은행의 특별출연금 5억원을 재원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용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5%p↓, 2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보는 신한은행의 보증료지원금 1억4000만원을 기반으로 1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며, 신한은행은 보증료(0.7%p, 2년간)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웅진프리드라이프

서울현충원 묘역정화 활동

웅진프리드라이프 임직원들이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참배 행사와 묘역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17일 웅진프리드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3일 진행된 ‘순국선열의 날 맞이 묘역정화·봉사활동’에는 2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여,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위패 봉안당을 방문해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다.

이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임시정부 요인이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역을 포함해 총 4개 묘역에 걸쳐 1502위의 비석 닦기 및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쳤다.

/김승호 기자